

# “자영업자 금융애로 현장 청취반 운영”

윤석현 금감원장, 취약계층 지원 지방은행 간담회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기공식... 11월 20일 문열어

윤석현 금감원장이 송중욱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6개 지방은행장을 모이놓고 은행의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노력을 격려하고 금감원의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윤 원장은 3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방은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 원장은 지방은행의 특성에 맞게 감독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은행의 자산규모나 국제적 영업의 정도에 따라 건전성 규제를 차등하는 ‘비례성 원칙(proportionality)’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도 이를 참고해 자산규모나 특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비례성 원칙을 적용해 건전성 감독기준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지방소재 기업들이 부실화되면 안된다”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생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줄 역할을 지방은행이 맡아야 한다”고 지방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는 신속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등의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후 광주은행 구 중부지점에서 자영업자·서민과 함께하는 ‘포용금융센터’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송중욱 광주은행장,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손중호 상인연합회장, 이경채 소상공인연합회장, 박종광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등이 참석해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의 기공을 축하하고, ‘자영업자 지원 간담회’를 통해 지역 자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지원체계 구축과 관계기관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언제든 방문해서 해결방안을 처방받을 수 있는 응급 상담체계(Emergency room)를 구축하고 잠재력과 성장성을 가진 자영업자들이 대출 심사과정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영

업자 금융애로 현장청취반’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경영 컨설팅’을 은행권과 함께 전국에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광주은행 창립기념일인 올해 11월 20일에 1968년 광주은행 창립 당시 본점으로 활용된 구 중부지점 자리에 문을 열 예정이다. 지역 내 자영업자·서민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채무조정 상담,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종합상담센터로 자리매김해 금융 취약계층에게 고금리대출 대환이나 부채관리 서비스 등의 금융지원을 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인 광주은행에게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과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은 책무이자 사명”이라 강조하며 “우리 지역 자영업자와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동행하겠다. 자영업자와 서민금융에 특화된 원스톱 금융지원센터인 포용금융센터를 통해 자영업자와 서민의 경영·금융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주은행 구 중부지점에서 열린 ‘포용금융센터’ 기공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행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광주전남회장, 손중호 상인연합회장, 이경채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중욱 광주은행장, 윤석현 금감원장,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김홍균 광은리더스클럽중앙회장, 박종광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영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호남본부장, 여근수 총장로상인회회장. (광주은행 제공)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96.02 (-26.00) ↓ 금리(국고채 3년) 1.43 (-0.03)
- ↓ 코스닥 693.04 (-3.21) ↑ 환율(USD) 1171.30 (+5.30)



## 광주 충장로 프리미엄 누린다

‘충장 모아미래도 스위트M’ 이달 분양

광주천·광주공원 조망권 좋아

광주 도심 충장로 일대에 들어서는 수익형 오피스텔 ‘충장 모아미래도 스위트M’이 이달 중 분양한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1층-지상 26층 오피스텔 439실과 근린생활시설로 이뤄졌으며, 24.84㎡의 A-1·A-2타입, 56.03㎡의 B타입, 48.74㎡의 C타입으로 구성됐다. 특히 광주천·광주공원 조망권과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단지는 조망권 확보와 편리한 주차환경을 위해 지상 5층까지 주차장으로 설계됐다. 지상 6층부터가 주거시설(오피스텔)로 바로 앞 광주천·광주공원은 물론 무등산까지 조망할 수 있다. 옥상정원을 조성해 한층 더 쾌적하고 여유로운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오피스텔 내부는 생활의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최첨단 IoT시스템과 1인 가구의 편의를 고려한 풀옵션 빌트인시스템 등으로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모아종합건설을 주축으로 남광건설·남광산업이 시공을,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이 시행을 맡는다. 위탁은 디에이치도시개발이 담당한다.

‘충장 모아미래도 스위트M’이 들어서는 곳은 금남로4가역 초역세권이다. 금융의 거리, 보석의 거리, 충장로, 웨딩의 거리, 구시청사거리 상권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롯데백화점, NC웨이브, CGV, 양동시장, 대인시장, 각종 병원 등이 인접해 부동산 가치가 높다.

특히 이 곳 일대는 광주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직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하철 2호선 연장사업 등 다양한 개발 계획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안정적인 배후 수요에 여러 개발 호재가 겹쳐 충장로 일대 개발 프리미엄을 주도해 나갈 최고의 부동산 투자상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서구 상무면하로 112번지에 위치한 견본주택을 방문하면 알 수 있다. 문의 062-720-6363.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현대·기아차, 연비 높이고 배출가스 감소 신기술 ‘CVVD’ 개발

신형 쏘나타 터보에 장착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엔진의 종합적 성능을 높여주는 신기술을 개발해 신형 쏘나타 터보에 적용한다. 엔진 성능과 연료소비효율(연비)은 동시에 높이고 배출가스는 줄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기아차는 엔진 효율을 높이는 연속가변 밸브 듀레이션(CVVD, Continuously Variable Valve Duration)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양산에 적용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신기술 미디어 설명회를 열

어 CVVD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스트립 G 1.6 T-GDi’ 엔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엔진 작동상태에 따라 밸브 열림 시간을 조절하는 기술 개발은 133년 기술린 내연기관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일이라고 현대·기아차는 평가했다.

CVVD기술은 엔진 밸브 열림 시간 제어를 획기적으로 늘려준다. 정속이나 가속 등 주행 조건에 따라 흡기 밸브 열림 기간을 자유롭게 최적 상태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특히 엔진 성능과 연료소비효율(이하 연비) 향상과 배출가스 저감이라는 상충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특징이

다. CVVD 기술을 적용하면 성능은 4%, 연비는 5% 향상되고, 배출가스는 12%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현대·기아차는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이 신기술을 스마트스트립 G1.6 T-GDi 엔진부터 시작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스마트스트립 G1.6 T-GDi 엔진은 배기량 1598cc의 4기통 가솔린 터보엔진으로, 최고출력 180마력, 최대토크 27.0kgf·m의 성능을 구현했다. 여기엔 CVVD 기술 뿐 아니라 연비 개선에도움이 되는 저압 배기가스재순환 시스템(LP EGR)이 국내 최초로 적용됐다.

EGR시스템은 엔진에서 연소된 배기가스 일부를 다시 엔진으로 재순환시켜 연소실의 온도를 낮춤으로써 연비를 개선하는 한편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장치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신기술 개발이 엔진 분야에서 쉼표 찍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알버트 비어만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장(사장)은 “독창적으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CVVD 기술은 파워트레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지속 개발해 자동차의 성능과 상품성 향상은 물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테크노파크, 중기부 지역기업육성사업 선정

2년간 24억원 확보

(재)전남테크노파크가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주도형 지역기업육성사업(BIR&D) 공모에 선정돼 2년간 24억원(국비 16억8000만원, 도비 7억2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받게 됐다.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율적이면서도 지역 상생을 고려한 민간주도의 상향식 접근방식(bottom-up approach)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 특색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서비스기업의 성장을 촉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 8월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네트워크 산업생태계 구축 계획을 수립해 지역 내 매출액 10억원 이상 제조업체 1730개사를 조사·분석, 참여기업 후보군을 선정했다.

선정 기업은 중앙이앤씨, 엠스코어, 한국스리축, 금성필름, 대경, 휴인, 비피시, 동양인더스트리, 동해플러스텍, 원가람 등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아파트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문의. 010-6834-7400

